

라스코 혹은 예술의 탄생

Lascaux, ou la Naissance de l'Art

예술의 탄생

게임(놀이)의 탄생

인간의 탄생

예술의 탄생



“라스코 사람이 버젓이 예술 세계를 창조해냈다. 여기에서 정신의 소통이 시작한다.”

Bataille, G, *Œuvres complètes IX, LASCAUX OU LA NAISSANCE DE L'ART*, Gallimard, 1979, p. 12)

라스코의 기적

예술의 탄생

- 인간과 예술로부터 유래하는 가장 아름다운 감성의 신호
- 후기 구석기 시대, 그 어둠으로부터 시작된 빛이 인류의 여명

라스코와 예술 작품의 의미

- 유용성을 벗어난 매력적인 작업. 소통으로서의 예술 정립
- 이 라스코 사람들 그림들의 아름다움은 **우정, 우정의 온화함에 말을 걸어 온다**
- 먹잇감을 죽이려는 사냥꾼들의 탐욕적인 주술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그림들

놀이의 인간·예술·종교

- 상상의 동물 의미, 일각수. 죽은 남자. 내장 흘리는 들소
- 우연과 놀이의 산물
- 지식이 아닌 예술: 호이징어의 호모 루덴스 Homo ludens 즉 *놀이의 인간* 개념의 타당성

금기와 예술

고대 사회는 희생 속에서 제물을 죽이고 바치는 사제의 죄악을 경험.

그는 관중들의 불안한 침묵 속에 희생당하는 제물(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불안의 이유를 알고 스스로 불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제는 살인의 금기를 범하는 죄를 행한다. 예술은 이 종교적 금기의 순간을 표현하는 것이다.

금기의 위반과 예술

위반은 항상 더욱 경이로운 형태 즉 시, 음악, 춤, 비극 회화의 형태로 옮겨진다. 종교 축제의 시원은 예술의 형태에 있으며, 모든 예술 형태와 연관되어 있다. 놀이는 일종의 노동이라는 법칙에 대한 금기이다. 예술, 놀이, 위반은 노동의 규칙성을 지배하는 원칙들에 대한 유일한 부정 행위인 것이다.

금기와 위반

- 노동과 놀이, 금기와 위반, 축제의 분출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배려가 중요.
- 예술 형태는 모든 시대의 축제 형태와 다르지 않음. 축제는 종교적이며 모든 예술의 근원
- 예술 작품 하나, 희생 하나에 노동의 세계를 넘어서는 축제의 정신이 깃들여 있다.
- **현 인류의 탄생: 호모 사피엔스 즉 생각하는 인간이 아닌 예술인의 탄생**

예술의 탄생, 인간의 탄생, 종교의 탄생

Erotisme의 현현

종교와 예술의 토대로서의 예술적 에로티즘의 시원
우리가 다룰 작품 대부분의 토대가 되는
고전성으로서의 에로티즘이 현대 예술 공연으로 전승



뮤지컬의 탄생

- 뮤지컬은 노래, 춤, 연기가 함께 하는 총체적 공연 예술. 이러한 공연은 라스코 농굴 벽화의 새의 탈을 쓴 사제의 죽음에서 알 수 있듯이 인류 호모-사피엔스-사피엔스 탄생과 함께 시작한 의례에서 유래(현재 아시아, 아프리카, 시베리아의 가면극 등이 그 한 예이며 공동체를 위한 희생제 의가 기원)
- 르네상스 시대 오페라를 즐기던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의 오페라 부프 Opera Bouffe에서 뮤지컬 원형을 찾음(오페라 부프 논쟁) : 최초의 현대성(modernité) 논쟁의 하나
- 1910년~1920년대에 미국의 뮤지컬 작곡가 제롬 컨 Jerome Kern(1885-1945)이 당시 대중 음악과 프랑스의 오페라 부프 형식을 접목 초기 뮤지컬 연극(comédies musicales) 형식을 확립, 현대적 의미의 뮤지컬 형식이 완성
- 이를 전승한 초기 유럽 뮤지컬은 흥미 위주 음악 쇼에서 탈피하여 극적 드라마를 더하여 뮤지컬 코메디와 뮤지컬 쇼로 자리매김

현대 뮤지컬 코메디와 뮤지컬 쇼

- **Comédie musicale**(musical comedy, musical play, 뮤지컬 드라마, 樂劇):

완성도 면에서 연기보다 음악성을 중시, 심리적 내면적 독백 강조. 성공할 경우 앨범 출판 가능.

- **Spectacle musical**(musical spectacle, 뮤지컬 쇼):

Notre-Dame de Paris (1998) 이후 히트 넘버 중심으로 전개. 단절적 무대 흐름, 앨범 판매와 흥행을 우선. 음원을 미리 공개하여 대중성 확보 후 공연, 관객의 합창, 화려한 안무와 무대 장치 십계 *Les Dix Commandements*, 태양 왕 *Le Roi Soleil*, 로미오와 줄리엣-증오에서 사랑으로 *Roméo et Juliette-de la haine à l'amour*

Cf. Musical concert: *les Misérables*

프랑스 뮤지컬의 원류

- 13세기 후반 북프랑스의 음유시인 아당 드 라 알
Adam de la Halle의 양치기와 기사 딸의 로맨스를
다룬 전원 **목가극**
- 17세기 이탈리아의 오페라 부파의 영향을 받은 프랑
스 **오페라 부프**(나중에 오페레타로 불리게 됨)
- 18세기 초반의 버라이어티 쇼 형태의 연극 장르 **보드
빌**
-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오페라 코미크**(대사가 있는 오
페라, 희극 비극 모두 포함, ex, 카르멘)

프랑스 뮤지컬 특징

- 프랑스를 비롯한 프랑스어권에서 제작
- 브로드웨이 / 웨스트엔드 작품과 달리 지역성, 작품성 강조
- 1998년 작 <노트르담 드 파리>의 성공으로 프랑스 뮤지컬 인기 절정
- 영미권 뮤지컬과 달리 성악과 안무 분리
- 뮤지컬 반주에 라이브 음악 아닌 녹음된 음악 사용 추세(레미제라블은 예외)
- 공연 이전, 음원을 먼저 공개하여 대중성 확보, 관객들에게 다가감
- 구체적인 스토리보다 인상적이고 화려한 음악으로 관객과 승부
- 프랑스 3대 뮤지컬로 꼽히는 <십계>, <로미오와 줄리엣>, <노트르담 드 파리>이외에도 <어린 왕자>, <돈 주앙>, <태양 왕> 등

오페라와 뮤지컬 차이:

<카르멘>을 위한 사전 주의 사항

1. 발성법

뮤지컬의 경우, 장르, 캐릭터의 성격과 극중 상황에 따라 음역과 음색이 달라진다. 하지만 오페라의 경우 가슴을 울리는 흉성(진성) 즉 벨칸토(목소리를 악기처럼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제어하는 기법), 뮤지컬의 경우 육성, 샤푸팅 Cf. Cats, Memori(유일한 창작 가사, 천국으로 환생하여 대성당의 종을 울려라. 누가? Grizabell. Erotisme)

2. 목소리 전달

뮤지컬은 1940년대부터 마이크 사용, 가사 전달력에 집중, 오페라 음악성 강조

프랑스 뮤지컬의 역사

1979 : *Starmania* (미셸 베르제, 릭 플라망동 제작); *Tycoon*
Tim Rice 각색-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에비타>, <미녀와 야수>, <라이온 킹>, <아이다> 제작

Les Parapluies de Cherbourg (셀부르의 우선) (미셸 르그랑, 작크 드미의 영화 각색)

1980 : *Les Misérables* (클로드 미셸 쇤베르그, 위고 소설 원작)

1984 : *Napoléon* (이브 질베르 Yves Gilbert / 세르주 라마 Serge Lama)

1998 : *Notre-Dame de Paris* (리샤르 코시앙트 작곡, 릭 플라망동 작사)

* 셀린느 디용과 바다 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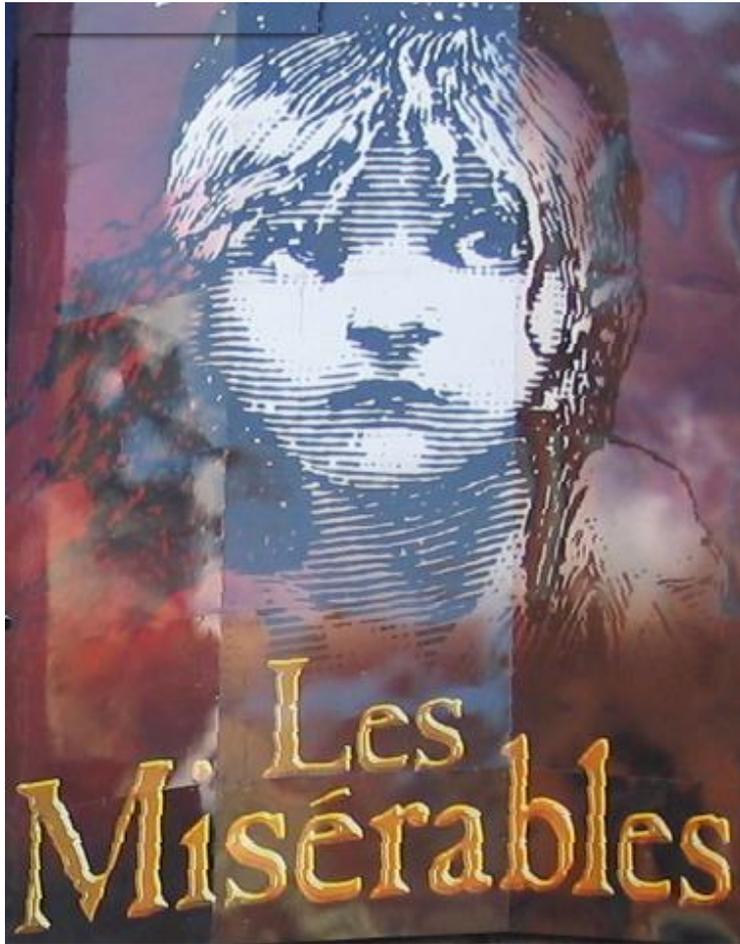
2000 : *Les Dix Commandements*(십계) - *The Ten Commandments: The Musical*(2004)

2001 : Roméo et Juliette-de la haine à l'amour(증오에서 사랑으로) 제라르 프레스귀르빅 Gérard Presgurvic 작곡

2002 : *Le Petit Prince* (노트르담드 파리의 Richard Cocciante 작곡)

2010 : *Roméo et Juliette, les enfants de Vérone, new version*(베로나의 아이들) 아시아 투어

레 미제라블 Les Misérables 1980



작곡: 클로드 미셸 쇤베르그

작사: 알랭 부브릴, 장 마르크 나텔
(프랑스어 가사)
허버트 크레츠머 (영어 가사)

극본: 클로드 미셸 쇤베르그
알랭 부브릴, 트레버 년,
존 케어드 (각색)

원작: 빅토르 위고(1862)

주제: 1832년 군주제 반대 파리 봉
기 속 피어난 민중의 우정과 희생

혁명의 문화: (1789~1870): 계급 갈등 시대





노트르담 드 파리 1998

작곡: 리샤르 코시앙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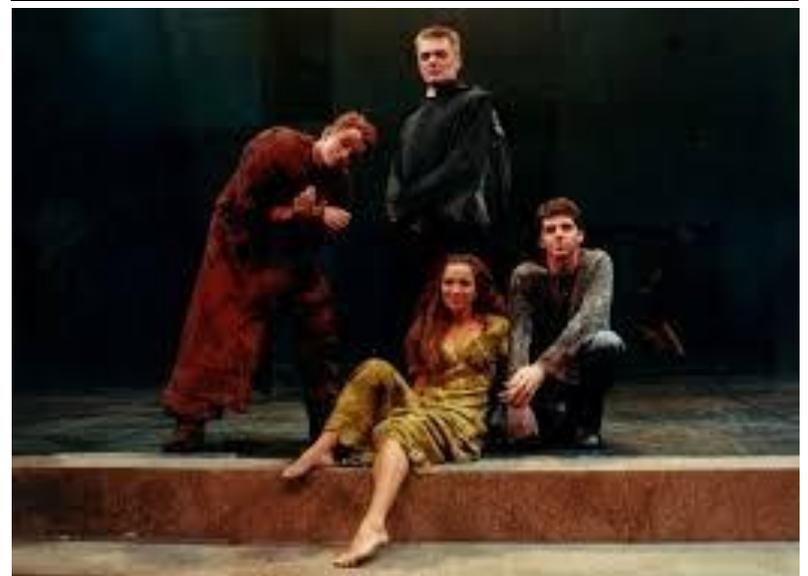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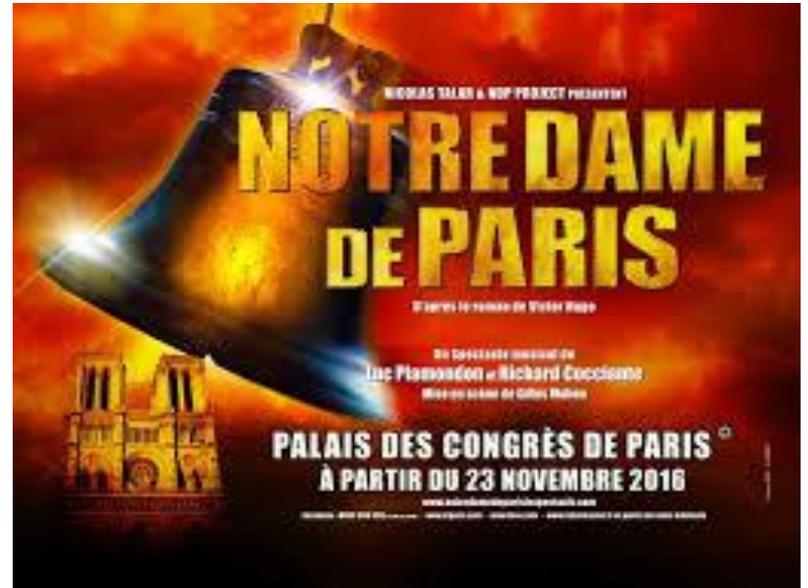
작사: 뤽 플라몽동

무대: 질 마외

제작: 사를 라

프랑스 캐나다 공동 제작

주제: 중세의 이미지의 보고에서
폐허가 된 고딕 성당 부활의 꿈



1. 서막 ouverture

사랑만이 유일한 고귀함

모든 이야기는 똑같이 시작하지.

달빛 아래 새로운 것 하나도 없다네.

별 하나가 켜지면 또 다른 별 하나가 꺼지기 마련
물론, 비와 우연, 밤과 기타 소리들을 믿을 수는 있지
각자 자신의 언어, 자신의 시선을 지니기 마련이고.

모든 이야기는 자신의 이야기를 품고 있지.

사람들이 하는 말 따위 듣지 마시오.

사랑만이 고귀한 법,

그토록 열렬히 서로 사랑하리라

그리고, 서서히, 원치 않아도

열정은 추억으로 변해가네.

모든 이야기는 똑같이 시작하지.

달빛 아래 새로운 것 하나도 없다네.

자,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뮤지컬 스펙터클의 서곡

대성당의 시대

아름다운 도시 파리 전능한 신의 시대 때는 1482년 욕망과 사랑의 이야기
우린 무명의 예술가 제 각각의 작품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려 해 훗날의 당
신에게

대성당들의 시대가 찾아 왔어 이제 세상은 새로운 천년을 맞지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은 유리와 돌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돌 위엔 돌들이 쌓이고 하루 또 백 년이 흐르고

사랑으로 세운 탑들은 더 높아져만 가는데

시인들도 노래했지 수많은 사랑의 노래를 인류에게 더 나은 날을 약속하는
노래를

대성당들의 시대가 찾아 왔어 이제 세상은 새로운 천년을 맞지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은 유리와 돌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대성당들의 시대가 찾아 왔어 이제 세상은 새로운 천년을 맞지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은 유리와 돌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대성당들의 시대가 무너지네 성문 앞을 메운 이교도들의 무리

저들을 성 안으로 들게 하라 이 세상의 끝은 이미 예정되어 있지 그건 이천
년이라고

피렌체 Florence

내게 이야기해보라 피렌체와 르네상스 브라만트와 단테의 지옥을
그 곳에선 말하지 지구는 둥글다고 세상엔 또 다른 대륙이 있다고
대서양을 향해 배는 떠났네 인도에 닿기 위한 길을 찾으려고
루터는 곧 성경을 다시 쓸 것이고, 우리는 서 있지 불화의 시대 앞에
개혁자 구텐베르그 세상을 변화시켰고
쉴 새 없이 새 글이 인쇄되는 뉘른베르크
수 많은 시와 노래 논문들과 팜플렛
새로운 사상들 모든 걸 바꿔놓을
언제나 작은 것이 큰 것을 허물고, 문학은 건축을 무너뜨리는 것
학교, 책들이 대성당을 허물고 성경은 교회를 인간들은 신을 무너뜨리리
대서양을 향해 배는 떠났네 인도에 닿기 위한 길을 찾으려고
루터는 곧 성경을 다시 쓸 것이고, 우리는 서 있지 불화의 시대 앞에
그렇게 되리라 무너뜨리리라 02 서곡

거리의 방랑자들 LES SANS-PAPIERS

우리들 이방인 부랑자들 갈 곳 없는 떠돌이들
오, 노트르담 우리가 쉴 곳은 어디, 어디
우리들 이방인 부랑자들 갈 곳 없는 떠돌이들
오, 노트르담 우리가 쉴 곳은 어디, 어디
수천의 발길이 성 앞을 떠도네 이제 곧 우리는 수만 명이 되고
수십, 수백만의 쉴 곳은 어딘가, 어디, 어디,
우리들 이방인 부랑자들 갈 곳 없는 떠돌이들
오, 노트르담 우리가 쉴 곳은 어디, 어디
우리의 발길이 떠도는 이 곳은 섬 위에 세워진 도시의 성문 앞
세상이 변하고, 바뀌는 그 날에 이곳은 우리의 세상
우리들 이방인 부랑자들 갈 곳 없는 떠돌이들
우리들 이방인 부랑자들 갈 곳 없는 떠돌이들
오, 노트르담 우리가 쉴 곳은 어디, 어디
우리들 이방인 부랑자들 갈 곳이 없는 떠돌이들
오, 노트르담 우리가 쉴 곳은 어디, 은신처는 어디 1.00:04:03

*이하 출처: <노트르담 드 파리> OST 가사(한국판)

미치광이들의 축제 LA FETE DES FOUS

자 축제의 시작이다

자 축제다 미치광이

내게 맡겨주오 이 기쁜 축제를 신나고 즐겁게 이끌어가도록

자 축제의 시작이다

추한 자들 중에 가장 추한 자들 괴물들의 대행진을 열어보자

또 그 중에서도 누가 더 추한지 가장 추한 한 사람을 뽑아보자

미치광이 교황님을 가장 추한 자를 미치광이들의 교황님을

미치광이 교황님을 미치광이 교황님을 미치광이 교황님을

저기 숨어있는 저 자는 누군가 저 괴물 저 못난이를 끌어내라

미치광이 교황님을 가장 추한 자를 미치광이들의 교황님을

성당의 종지기 꼴사나운 꿈추 가장 추한 이름 그는 카지모도

주제도 모르고 아아 에스메랄다 그녀를 꿈꾸네 그 천한 꿈속에

미치광이 교황님을 미치광이들의 교황의 이름은 카지모도

가장 추한 자를 미치광이들의 교황님을 미치광이들의 교황의 이

름은 카지모도 교황이여 1.00:19:40

태양처럼 눈부신

BEAU COMME LE SOLEIL

태양처럼 눈부신 그는 왕자님일까 가슴 깊은 그 곳에 주체할 수 없는 사랑

태양처럼 눈부신 그는 왕자님일까 내겐 왕자

태양처럼 눈부신 그는 악당 그는 군인 그의 품에 안기면 난 달아날 수가 없네

태양처럼 눈부신 그는 악당 그는 군인 왕의 군인

태양처럼 눈부신 나의 기적, 나의 남자 우리의 이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

태양처럼 눈부신 나의 기적 나의 남자 태양처럼 눈부신 아, 태양처럼

1.00:37:32

아나키아 ANARKIA

누구나? 성당 앞에서 불경스런 춤을 추는 저 여자는

그녀는 나의 아내, 짚시의 왕이 나에게 주었죠

그녀를 만졌나? 사탄의 종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선 안돼

내게 말해줘요 저 글의 의미를 회랑의 돌 위에 새겨져 있는 말. 저건 무슨 뜻이죠?

아나키아.

정신차려라. 그리스어로 그 뜻은 **숙명**이다.

저건 카지모도, 무슨 일일까요

저 녀석 또 무슨 짓을. 알아보라. 왜 인지.

1.00:42:41

아름다워 BELLE

벨 눈부신 그녀를 위해 있는 말 새처럼 날개짓 하는 그녀를
아름다운 그녀를 바라볼 때면 난 마치 지옥을 걷고 있는 기분
그 치맛자락에 붙들린 내 눈길 이런 내 기도에 의미가 있을까
그 누가 그녀에게 돌을 던지는가 이 땅에 살아갈 가치도 없는 자
오 루시퍼, 오 단 한번만 그녀를 만져볼 수 있게 해주오, 에스메랄다
벨, 너를 사로잡고 있는 악마가 신을 향한 내 눈을 가리는가
너로 인해 눈을 뜬 욕망에 갇혀 저 하늘을 더 바라 볼 수 없도록
원죄의 숙명을 안고 사는 그녀, 그녀를 향한 욕망은 최악인가
그 천하고 더러운 한 여자의 등에 인류의 십자가가 놓여있는 듯
오 노트르담 오 단 한번만 그녀를 나의 것이 되게 해주오, 에스메랄다
벨, 검은 너의 두 눈 유혹의 눈길 그 누구도 거부할 수는 없지
무지개처럼 치마를 휘날리며 춤추는 넌 내게 마법을 걸지
사랑이여 제발 날 용서해주오 신성한 결혼의 언약을 저버린
그 누가 네게서 눈을 땔 수 있을까 이대로 굳어서 돌이 된다 해도
오 플뢰르 드 리스 나도 어쩔 수 없어 내가 원하는 사랑은 에스메랄다
그 치맛자락에 붙들린 내 눈길 이런 내 기도에 의미가 있을까
그 누가 그녀에게 돌을 던지는가 이 땅에 살아갈 가치도 없는 자
오 루시퍼, 오 단 한번만이라도 그녀를 만져볼 수 있게 해주오
에스메랄다 에스메랄다

내 집은 그대의 집

MA MAISON C'EST TA MAISON

내 친구 석상들이 돌봐줄 꺼예요 걱정 말아요 그댈 지켜주죠
피할 곳이 필요할 땐 언제든 이곳을 찾아오세요

노트르담 성당은 내 집, 내 둥지, 내 거리, 내 인생, 하늘, 지붕, 침대
내 노래, 내 자유, 내 이성, 내 광기, 내 정열, 내 고향, 내 바다

당신의 친구들은 내게도 친구죠 슬프고 우울할 땐 나를 웃게 해요
아직 무섭지만 당신이 좋아요 당신 모습 그들과 닮았으니까
내 집엔 언제나 맑은 날 뿐이죠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죠
언제든 오세요 무슨 계절이든 그대가 원할 땐, 내 집은 그대의 집
피할 곳이 필요할 땐 언제든 이곳을 찾아오세요

내 집엔 언제나 맑은 날 뿐이죠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죠
언제든 오세요 무슨 계절이든 그대가 원할 땐, 내 집은 그대의 집
우~ 이곳은 나의 집. 1.00:50:30

이방인의 아베마리아

AVE MARIA PAIEN

아베마리아 용서하소서 당신 앞에 서 있는 저를
아베마리아 그 앞에 무릎 꿇어본 적도 없는
아베마리아 저를 지켜주소서 이 세상에 가득한 죄악과 불행들로부터
아베마리아 비록 서로 고향은 달라도
아베마리아 모두 형제듯 우리 가로막는 이 장벽을 허물어주소서
아베마리아 저의 낮과 밤을 지켜 주소서
아베마리아 지켜주소서 이 보잘 것 없는 사람 이 사람 아베마리아

1.00:53:32

발다무르 카바레 LE VAL D'AMOUR

생드니 거리 저 높이 축복 받은 곳이 있지
하루가 저물어가면 촛불들이 켜지는 곳
넓은 벌판 한 가운데 사랑을 찾는 발길이
오늘도 끊이지 않는 카바레 발 다무르
오 발 다무르 그 곳에선 몇 푼에 사랑 팔지
황금도 달콤한 말도 거기선 다 필요 없어
그 곳에선 사랑 따윈 몇 푼이면 살 수 있지
세상 모든 항구에서 이 곳에 모인 사람들
여행자와 장사치들 머물렀다 떠나고
부자나라 양반들은 물 뿌리듯 돈을 쓰지
눈물 흘리며 부르는 내 슬픈 사랑 노래에
귀 기울이는 여인들 카바레 발 다무르
북소리 높이 울려라 이 곳으로 달려오라

사랑에 빠진다 해도 이 곳에서는 괜찮아
사랑의 모든 기쁨을 여기서 맛 볼 수 있지
사랑에 굶주릴 때면 난 이 곳을 찾아오지
어느 새 아침이 오면 떠나가야만 할 시간
미안해요 아가씨들 아름다운 에스메랄다
나를 운명이라 믿는 그 널 기다려야 해
사기꾼과 건달들이 북문 근처에 모이네
그들의 바쁜 걸음이 찾아가는 곳 발 다무르
여기선 체면을 벗고 마음껏 취할 수 있지
오 발 다무르 그 곳에선 몇 푼에 사랑을 팔지
황금도 달콤한 말도 여기선 다 필요 없어
이 곳에선 사랑 따윈 몇 푼이면 살 수 있지
이 곳 카바레 발 다무르 카바레 발 다무르
1.01:01:59

사랑의 기쁨 LA VOLUPTÉ

내게 주오 사랑의 기쁨을
누구의 손길도 아직 닿지 않은 그대를
오로지 나만이 그댈 알게 해주오
오, 나의 검은 천사 사랑하리 우리 둘 만의 밤
첫 눈길로 미친 사랑에 빠졌지
같은 불꽃이 되어 우린 타오를 거예요
이 사랑에 내 전부를 걸고 싶어
운명 그 뜻을 따르겠어요
함께 운명이 이끄는 길로

1.01:05:30

숙명이여 **FATALITE**

숙명이여 그 누구의 인생도

숙명이여 벗어날 수 없는 힘

숙명이여 왕자건 거지건

숙명이여 여왕이건 창녀건

숙명이여 **운명의 지배자여**

숙명이여, 숙명이여, 숙명이여

01:07:15

성당의 종들 LES CLOCHES

종소리 그치고 침묵하는 성당 카지모도는 불행하고 사랑에 빠져 버렸네

종들이 멈춘 지 사흘이 되었지 카지모도는 슬프고 미쳐버렸지

사랑으로 죽어가네

대성당의 종들은 나의 사랑 내 연인들 그 노래 먼 곳까지 울리기를 난 원하지

천둥, 번개와 비바람 몰아쳐도 노랴 불러다오 기쁨 때나 슬플 때나

탄생과 죽음을 환호와 좌절을 그 모든 시간들을 알리는 종소리

기도를 위해서 눈물을 위해서 눈 뜨는 이를 위해서 울리는 소리

종교주일을 위해 부활주일을 위해 성탄절 만성절을 위해 울리는

수태고지일을 주님의 부활을 그 모든 축일을 알리는 그 종소리

미사와 행렬을 위한 그 종소리 신의 축제를 위한 아름다운 소리

새로운 노래를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많은 날들을

세례와 성찬식 기도의 시간을 언제나 우리에게 알려주는 소리

성모와 주님이 승천하신 그 날 호산나 찬양하는 그 소리를 위해

하지만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 셋 있지 나의 마리아

작은 종 마리아는 죽어간 어린 목숨을 위해

커다란 마리아는 뱃사람의 앞 길을 위해

결혼하는 어린 연인을 위한 제일 큰 마리아의 노래

나는 건딜 수가 없어 죽고만 싶어 차라리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모습들 하지만 누구보다 나는 불행해

결혼의 기쁨이 가득한 그 모습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그 모습

나의 종소리는 거룩한 미사곡 호산나 할렐루야 찬양하는 노래

불행의 종소리 행복의 종소리 한번도 결코 날 위해 울리지 않니

대성당의 종들은 나의 친구 내 연인들 이 마음 전해다오 큰 소리로 울려다오

그녀가 살아있다면 오 나의 에스메랄다

2.00:05:06

죄인들 CONDAMNES

죄인들 피고인 붙잡힌 사람들 유배자 망명자 쫓겨 난 사람들
너와 내 피부는 서로가 다른 색 내 춤과 노래도 너와는 다르지
이 거리, 이 땅에 쫓겨 난 이 고통

그런 세상을 만들 순 없는 걸까

배척도 없고, 가난도 없고 국경도 없는

고문을, 처형을, 학살을, 당하고, 굴욕을, 억압을, 배척을 받는 자

내 몸에 가슴에 묻어 둔 내 나라 불행과 죽음을 내게 준 이 나라 회색빛
이 하늘 배척도 없고 가난도 국경도 없는

새로운 세상 내가 꿈꾸는 세상

죄인들 피고인 붙잡힌 사람들 유배자 망명자 쫓겨난 사람들

죄인들 죄인들

2.00:15:45

춤을 춰요, 나의 에스메랄다 DANSE

MON ESMERALDA

많은 세월이 흐른 뒤 그들은 찾겠지
끌어안은 채 썩어간 두 사람의 뼈를
슬픈 과지모도 그가 에스메랄다를 얼마나 애타게 사랑했는지
저주 받은 그 영혼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나의 피와 살을 뜯거라 어둠의 독수리여
시간과 죽음을 너머 하나가 되도록
고집스런 나의 영혼이 이 땅을 떠날 수 있게
간절한 나의 사랑이 저 하늘에 닿을 수 있게
춤을 춰요 에스메랄다 노래해요 에스메랄다
조금만 더 날 위해 죽도록 그댈 사랑해
춤을 춰요 에스메랄다 노래해요 에스메랄다
함께 갈 수 있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
춤을 춰요 에스메랄다 노래해요 에스메랄다
내 품에서 잘자요 죽도록 그댈 사랑해
춤을 춰요 에스메랄다 노래해요 에스메랄다
저 세상 그 끝까지 죽음도 두렵지 않아
춤을 춰요 에스메랄다 노래해요 에스메랄다
함께 갈 수 있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 2.00:56:37



로미오와 줄리엣: 증오에서 사랑으로 2001

Roméo et Juliette, les enfants de Vérone, new
version(베로나의 아이들) 아시아 투어 2010 :

작곡: 제라르 프레스귀르빅

작사: 제라르 프레스귀르빅

안무: 레다

무대: 레다

주제: 증오에서 죽음을 통해 사랑에 이르는 에로티즘

3. 증오 La haine

사랑과 증오는 자매-양가 부인들

전지한 신이시여, 우리를 보소서 그리고 당신을 보소서
우리 집안에 증오라는 이름의 독이 흐르오
증오, 증오... 당신 영혼 속의 뱀처럼 말이지
증오, 증오... 당신에게 심판을 맡기기는 하지만, 당신을 벌하는
증오, 증오... 나는 당신의 눈에서 증오가 불타오르는 것을 보오..
증오, 증오... 당신에게 불행을 안기는 증오를 증오하오.
나는 그대에게 혐오감만을 갖고 있을 뿐
왜 이 도시에서 우리는 그토록 사랑해야 하는지
증오...증오...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증오, 증오... 누가 우리를 그대의 공범자로 만드는지
증오, 증오... 그것은 비겁한 자들이 결여한 용기...
증오, 증오... 보이지 않는 사랑의 자매...
이 모든 밤들로 나는 그대를 저주하리
그대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대에게 귀 기울여야 하는 밤
쾌락마저 잊은 그대를
중요한 것은 오직 증오뿐...
그대를 들으시오 증오가 그대를 사로 잡으리니
이 빌어먹을 증오는 그대의 모든 것을 움켜쥐고
그대를 돌아보시오. 그대는 아무것도 아니니
단지 증오의 손에서 놀아나는 꼭두각시
어떻게 우리가 증오라는 이름 안에서
그토록 많은 범죄와 희생자를 지어내는지
증오... 증오가 그대 영혼 속에 씨를 뿌리러 오네
그러니 귀 기울이시오. 여인들의 목소리에
증오, 증오, 증오

12. 내 잘못 아니지 C'est pas ma faute

그리스 비극 전통-티볼트

우리가 이루어 갈 추억들이야 말로 최고의 아름다움
모든 것이 거짓일 때 어린 시절은 더욱 짜증나
누가 내 것을 훔치고 배반하고
난 증오와 경멸의 아들.

사람들은 내 눈을 가리고 말했지
남들은 전쟁을 원하고 있고 나 또한 그렇게 되리라고
난 어둠의 감정 속에서 컸지
어린아이에게는 너무나도 검고 암울한 그림자

외로워 정말 외로워

외로워 아직도 너무 외로워

내 잘못이 아니지

내 부모가 날 이렇게 만들고

지금의 나, 네가 보는 나

내 잘못이 아니지

나는 그들 복수의 산물

15. 사랑으로 Par amour - 로미오

사랑으로 우리는 미쳐버리지
하지만 사랑 없인 우린 아무것도 아니야
내 사랑은 오직 신을 향해
신의의 눈속에만 살아 있어
사랑으로 고통받을 수 있지
사랑을 위해 죽을 각오가 돼있지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해...

사랑으로 우리의 고통이 너무 심해도
사랑은 어둠 속 우리를 이끄는 별
사랑 없는 우리 인생은 허무한 것

18. 사랑한다는 것 Aimer-줄리엣

사랑, 가장 아름다운 것
사랑, 아주 높이 비상하여
새들의 날개를 만져보는 것
사랑, 가장 아름다운 것
사랑, 시간을 훔치는 것
사랑한다는 것, 그건 살아 남는 것
그리고 화산 한 가운데서 타오르는 것
사랑, 가장 아름다운 것
사랑, 그 무엇보다 강하고
우리로부터 최선을 남기는 것
사랑하고 가슴을 느끼고
사랑하면 두려움도 덜하지...

사랑, 대가를 치르는 것
그리고 삶에 의미를 주는 것
사랑, 자신의 밤을 불태우는 것

17. 죄인 coupables – 로미오와 줄리엣

제2막 마지막 넘버

우리 삶은 이제

길 잃은 배에 불과해

왜 아직 살아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죽고 없는데

그리고 신과 인간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지

아이들의 수정 같은 영혼이

우리의 악을 용서하기를

분노한 우리의 신들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저지르게 한 악(mal)

이제 평화롭게 잠들거라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거라

사람들이 우리를 심판하리라, 우리를 비난하리라

그 애들은 천국에, 우리는 불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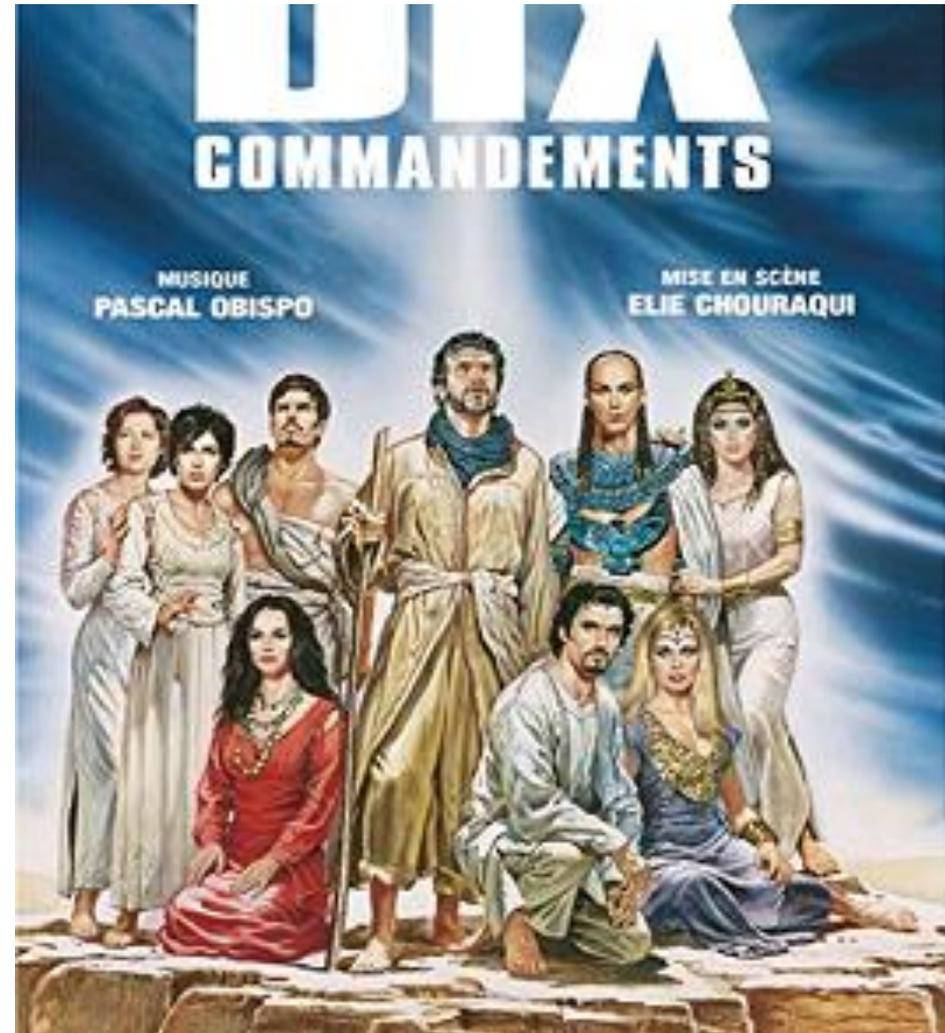
여기서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는 끝나네

십계 Les Dix Commandements Le Spectacle Musical 2000

작곡: 파스칼 오비스포
작사: 리오넬 플로랑스, 파트
리스 기라오
제작: 엘리 슈라키, 도브 아티
아, 알베르 코엥

주제: 모세와 람세스의 우정
종교적인 색채보다는 사랑, 우
애, 자유, 관용이라는 보편적인
메시지 특히 2002년 '프랑스의
노래'로 선정될 정도의 음악적
완성도 우수

모세(세르지오 모스케토, 다니엘 레비)
L'envie d'aimer



Le Petit Prince 2002 (Spectacle musical)



<노트르담 드 파리>의 리샤르 코시앙트 작곡, 뤽 플라망동 작사, 신부 다니엘 라부아가 비행사로 출연

최초 페미니스트 오페라 코믹 카르멘: 탈권위, 여성 해방 운동의 시조

